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286-9206)
<http://www.jthink.kr>

- **문 의** : 사회문화연구부 김동영 연구위원
(063-280-7174, 010-4121-1210)
- **답 당** :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보도시점 : 2020년 08월 13일부터

역사문화권특별법 마한권역에 전북포함 타당

**마한의 시작이자 중심지인 전북의 마한역사권역 포함은 당연
역사문화권특별법 시행 이후 복원 및 문화재활용방안 준비 필요**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020년 8월 13일 『역사문화권특별법에 전북의 마한권역을 포함하자』라는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 20대 국회 말에 통과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2020년 6월에 제정·공포되었지만 역사학계는 물론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조차 없어 역사문화권 설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역사문화권특별법에 의하면 역사문화권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6개 문화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전북은 백제, 가야 역사문화권에 포함되고 마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전북 지역에 마한이 존재하였고, 고조선의 준왕이 익산 금마 지역으로 망명한 마한의 시작점이자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최근 혁신도시 일대의 개발로 만경강 일대와 전주의 황방산 일대가 새로운 중심지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6세기 이후에도 고창 일대를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부권은

영산강 유역과 함께 마한의 마지막 거점이었다.

- 그럼에도 역사문화권특별법에는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 설정하고 있어 전북이 빠져있다.
- 연구진은 시행령 제정과 2021년 6월 역사문화권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률을 개정해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이 들어가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의 포함 당위성은 명확한 만큼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와 전북사학회, 호남고고학회를 포함한 연구소와 학회의 공동성명서 발의와 한국고대사학회나 한국고고학회 등과 공동으로 법률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또한, 핵심유적의 복원과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개발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전북의 역사적 자존감 회복을 준비해야한다.
- 김동영 박사는 “역사문화권특별법은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모범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마한뿐만 아니라 후백제의 독자적 역사문화권설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한다”라고 말했다.